

구미시, 금오천 벚꽃축제 강행... 예산 탕진

구미경실련, 벚꽃 피지 않는데 연기하지 않고 1억 9000만원 예산 낭비하는 이유 궁금하다

구미시 벚꽃 축제 강행에 시민단체가 침을 가했다.

구미경실련은 "전해 군항제보다 사흘이나 일찍 벚꽃축제를 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축제 기간 벚꽃이 피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연기하지 않고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한 시민은 "꽃이 피지 않는 상태에서 축제를 하면 행사객이나 관광객이 당연히 오지 않을 텐데 연기하지 않고 강행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행사 공연팀 등의 섭외가 하루이틀 만에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무대와 각종 포토존 등의 설치도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5000만~6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꽃이 덜 피지만, 준비한 각종 공연 등을 즐기면 좋겠다. 포토존 등 각종 설치물은 축제가 끝나도 오는 31일까지 그대로 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잦은 봄비로 일조량이 줄어들고 꽃샘추위로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가 며칠간 계속되자 축제 전야제가 열리는 지난 22일에도 벚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면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로 전락, 축제 관계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축제장 주변에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식음존에는 푸드트럭이, 행사장에는 공연무대와 각종 부스가 들어서는데 손님맞을 준비를 마쳤는데 가장 중요한 벚꽃이 피지 않고 있다.

축제장 대부분의 벚나무에는 아직 꽃봉오리가 열리지 못하고 알알이 맺힌 상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미시는 주말 비 예보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강행했다.

구미시 금오산도립공원 아래 금오천은 1km의 독일 따라 왕벚나무가 끝없이 이어져

상춘객들의 사랑을 받는 '벚꽃명소'다.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해마다 열리는 '금오천 벚꽃축제'는 구미 시민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축제로 올해는 22일 시작해 26일까지 진행된다.

반면 경주시는 벚꽃이 피지 않자 22일부터 열 예정이던 '대동원돌담길 벚꽃축제'를 1주일 연기했다.

충북 청주시와 강원 강릉시도 벚꽃축제를 각각 1주일 미뤘다. **조미경 기자**



경북농업기술원이 과수농가를 찾아 과수화상병을 정밀 예방하고 있다. (사진=경북농기원 제공)

경북도의회 "역사왜곡 日 행태 분노"

경북도의회가 왜곡된 역사인식이 반영된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도의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2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내용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한 것과 관련해 역사왜곡을 반복하는 일본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 왜곡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미래세대에 게 그릇된 역사인식을 심어줘 후일 타무니없는 영토분쟁을 야기할 우려는 물론 정당한 주권국에 대한 도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배한철 의장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입각해 내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양국의 올바른 역사인식 하에 비로소 미래세대의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참된 역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성용 기자**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니들이는 오명관광여행사 와 함께 여행안내 054-791-1717

단체장 일정



류규하 중구청장은 25일 오전 남산기독교복지관에서 열리는 '암예방 및 암검진 특강'에 참석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25일 저녁 동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참석한다.

경북농기원, 과수화상병 막아라 총동원

화상병 예산 140억6천만 확보
화상 병균 활동 전 사전 제거
정밀예찰 강화 확산방지대응

경북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차단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활동하기 전 사전 방제와 확산 차단을 위해 전 시군 정밀예찰을 강화, 전년도 발생지역 집중예찰로 오염원 사전 제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화상병 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오염원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해서 정밀예찰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밀예찰은 화상병 의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미리 제거하기 위한 정밀 조사다.

전 시군에 걸쳐 정기적 예찰을 추진하고 있다.

예찰 강화를 위해 시군 화상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찰 방법, 오염원 제거 등 역량 강화 교육도 했다.

전년도 발생지역의 경우 추가 감염 과원 파악 등 선제 대응을 위해 도-시군 합동 집중예찰단을 구성했다.

발생지역 주변 과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식물방제관 100명을 투입, 집중 정밀예찰 등 중점 관리하고 있다.

식물방제관은 식물방역법 제31조2(식물방제관)에 의해 농작물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경북도에는 527명이 활동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인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수칙 등 교육, 리플릿, 문자 등을 활용

용해 2만 건의 홍보를 추진, 동절기 귀약제거를 완료했다.

화상병 예방 약제 예산을 140억 6000만원 확보해 4회(개화기 전 1회, 개화기 2회, 생육기 1회)의 화상병 예방 약제를 공급한다.

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기약제살포를 지도, 시군 화상병 상황 정기적 공유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화상병 차단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화상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화상병 대응 추진단을 구성, 도-시군 합동 화상병 모의 상황 대응 훈련과 시군 표준운영절차(SOP) 점검·보완 등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경북농기원은 과수농가에서는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예찰과 작업자 및 작업 도구 소독 등 화상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예천군, 경북도청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추진

4층5단 자주시 주차타워 신축
총 300여 대의 주차면 제공...



경북도청 신도시에 300대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이 추진된다.

예천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설계용역이 착수단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걷고 싶은 거리와 접해 있는 만큼 주차시설 외관에 심혈을 기울여 기존상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설계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오는 5월 기본설계안을 확정, 8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신도시 주차타워 설계용역을 마무리한다.

신도시 주차타워는 예천군 호명읍 산할리 현재 공영주차장에 조성한다.

4층 5단의 자주시 주차타워를 신축해 총 300여 대의 주차면을 제공한다.

설계용역사인 아이엠에이(MMA) 건축사무소 강진구 대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설계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차타워가 기능적 역할과 함께 신도시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병록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감감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일보 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도태우, 연고 없는 전략공천 주민들 납득 못해...

“김기웅, 文 군사 합의 당시 NLL 주권 문제 많다”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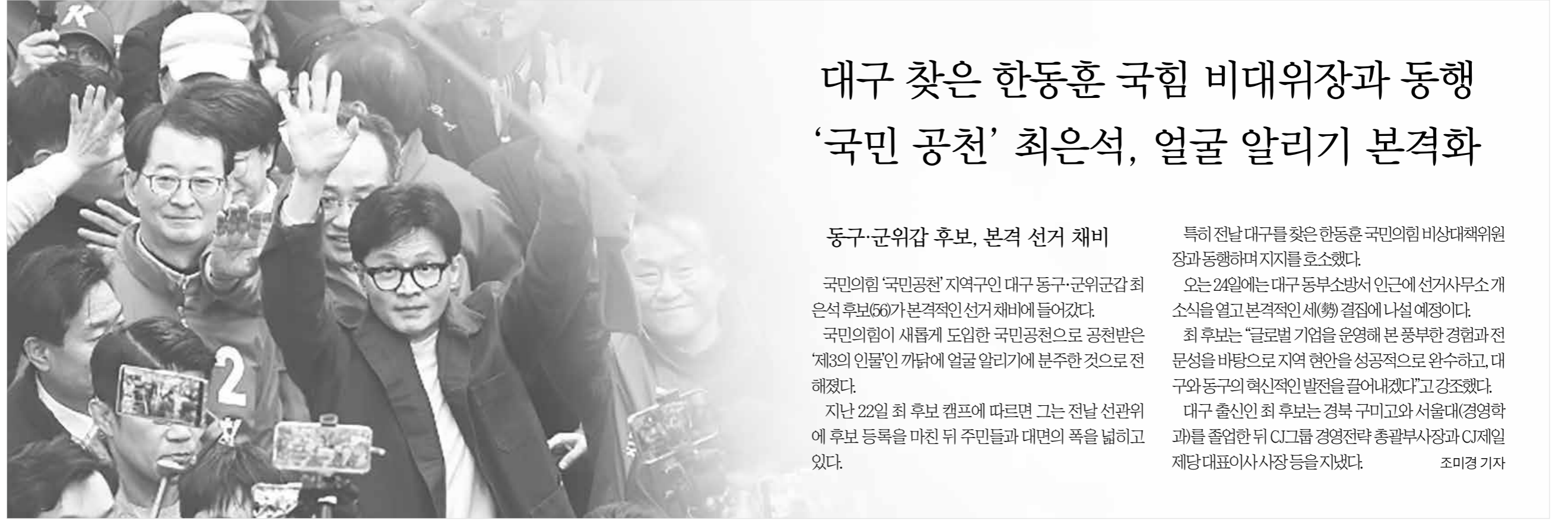
역을 둘러싼 부분 NLL(북방한계선)과 관련해 주권 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구 중구·남구는 20년 가까이 전략공천이 계속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며 “대구에 누구라도 내리꽂으면 무조건 당선될 것이라

는 보수정당의 오랜 악습을 이번에는 깨뜨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며 출마의사를 굳혔다. 도 후보는 “이번 선거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중·남구를 빛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던 후보에게도 뻔뻔스레 공천을 주는 민주당의 저열한 공세에 맥없이 무너지는 게 보수의 나약한 현

실”이라며 “보수의 심장 중·남구의 부흥과 발전을 이끌어가는 일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국민의힘 중남구 전략공천을 두고 “유권자들이 정당하게 뽑은 후보를 배제하고 지역과는 뚜렷한 연고도 없이 평생을 통일 관련 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을 후보로 공천한 데 대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했다. 총선 이후 국민의힘 북당 여부에 대해서 “큰 방향에서 저는 국민의힘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전략공천을 받은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중구·남구와는 뚜렷한 연고도 없고 평생을 통일 관련 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을 후보로 공천한 데 대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했다. 총선 이후 국민의힘 북당 여부에 대해서 “큰 방향에서 저는 국민의힘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도태우(사진) 무소속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21일 본인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공천에 쓴소리를 날렸다. 이날 도 후보는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남북 군사합의 당시 그 수



대구 찾은 한동훈 국힘 비대위장과 동행 ‘국민 공천’ 최은석, 얼굴 알리기 본격화

동구·군위갑 후보, 본격 선거 준비

국민의힘 ‘국민공천’ 지역구인 대구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후보(66)가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새롭게 도입한 국민공천으로 공천받은 제3의 인물인 까닭에 얼굴 알리기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최 후보 캠프에 따르면 그는 전날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주민들과 대면의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전날 대구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동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는 24일에는 대구 동부소방서 인근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勢)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최 후보는 “글로벌 기업을 운영해 본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대구와 동구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출신인 최 후보는 경북 구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CJ그룹 경영전략 총괄부사장과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냈다. 조미경 기자

대구·경북 후보자 등록 마쳐...28일부터 선거운동

제22대 총선에서 지난 2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들은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경북 지역구별 후보를 발표했다. 정당별 표기는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힘, 녹=녹색정의당, 새=새로운미래, 개=개혁신당, 진=진보당, 소=소나무당, 우=우리공화당, 자=자유통합당, 연=새진보연합, 무=무소속(정당·나·성별)이다.

구갑 박정희(민·54·여) 우재준(국·35·남) 박진재(자·49·남) △북구를 신동환(민·52·남) 김승수(국·58·남) 황영현(개·58·남) 신우성(무·51·남) △수성구갑 강민구(민·59·남) 주호영(국·63·남) 김성년(녹·46·남) 김기현(무·55·남) △수성구를 이인선(국·64·여) 조대원(개·53·남) 오준호(연·48·남) 박경철(무·54·남) △달서구갑 권택홍(민·55·남) 유영하(국·61·남) △달서구를 김성태(민·69·남) 윤재욱(국·62·남) △달서구병 권영진(국·61·남) 최영오(진·41·남) 조원진(우·65·남) △달서군 박형룡(민·58·남) 추경호(국·63·남)

일윤(무·85·남) △김천시 황태성(민·50·남) 송언석(국·60·남) 박건우(무·55·남) △안동시·예천군 김상우(민·63·남) 김형동(국·49·남) 김동훈(자·56·남) 김윤환(무·65·남) △구미시갑 김철호(민·69·남) 구자근(국·56·남) △구미시를 김현권(민·59·남) 강병구(국·46·남) 김영학(자·66·남)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박규환(민·55·남) 임종득(국·59·남) △영천시·청도군 이영수(민·49·남) 이만희(국·60·남) 김지미(무·57·여) 이승록(무·61·남) 김장주(무·59·남) △상주시·문경시·이윤희(민·59·남) 임이자(국·60·여) 김영선(새·57·여) △경산시 조지연(국·37·여) 엄정애(녹·53·여) 남수정(진·42·여) 최경환(무·69·남)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박형수(국·58·남) 심태성(무·38·남)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석원(민·58·남) 정희용(국·47·남) 박영찬(무·64·남) 조여은 기자

“김천의 발전 완성, 더 큰 도시 만들 것”

3선 도전 송언석 선거사무소 개소

제22대 총선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국회의원 후보(60·사진)가 지난 23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송 후보는 이번 총선을 통해 3선에 도전한다. 이날 개소식에서 “시민들과 함께 본궤도에 오른 김천 발전을 완성하고 더 큰 김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김천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부활과 혁신도시 도약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미래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 △사람이 찾아오는 위



케이션 도시 김천을 위한 관광산업 기반 조성 △스마트 물류거점 도시 도약 기반 구축 △대한민국 교통 중심 도시 김천 완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송 후보는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공직 생활을 한 뒤 20~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 국회 예결위 간사,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이경호 기자

■대구 △중·남구 하소(민·54·남) 김기웅(국·62·남) 도태우(무·54·남) △동구·군위군갑 신효철(민·55·남) 최은석(국·56·남) △동구·군위군을 강대식(국·64·남) 황순규(진·43·남) 정은실(자·62·여) △서구 김상훈(국·61·남) 서중현(무·72·남) △북

■경북 △포항시 북구 오중기(민·56·남) 김정재(국·58·여) 이재원(무·54·남) △포항시 남·울릉군 김상현(민·48·남) 이상휘(국·60·남) △경주시 한영태(민·60·) 김석기(국·69·남) 정수경(자·62·여) 김

구미를 민주당 김현권 후보 “ASML 제조공장 구미 유치”



22대 총선에 나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 후보(69·사진)가 23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랑스러운 구미공단 50년의 역사, 다가올 미래 50년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구미 경제를 살리고 시민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며 “LG BCM을 유치 성과를 냈던 것처럼 TK 통합 신공항배후산업 MRO 전진 기지를 구축하고 네덜란드 ASML 제조공장을 유치해 제2의 구미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언제까지 위에서 짊어내려 보낸 사람들(선거에서 뽑아야 하느냐)며 “힘 있는 재선 의원이 돼 구미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서울 총안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김 후보는 민주당 대외협력·대구·경북 발전특위위원,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위원, 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를 지역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이은진 기자

“고령·성주·칠곡, 관광·친환경 명소 조성”

정희용 후보 지역별 공약 발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4일 늘거리·불거리 많은 문화 관광·친환경 명소 조성 공약을 공개했다. 늘거리, 불거리 많은 문화 관광·친환경 명소 조성 공약의 지역별 세부 내용은 고령은 ‘대가야문화회관 개발’과 ‘가야대표 역사문화 고도(古都) 조성’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은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미송산 자연 휴양림, 대가야수목원 등의 관광 자원과 연계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대가야문화권을 조성할 예정이다. 성주는 ‘내수면 낚시복합타운’을 추진해 레저 시설·체험 프로그램 연계 체류형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성주호·가야산 개발과 연계한 ‘가야산권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성주호를 체류형 호수

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성주·가야산 중추탑 방향을 신선했다 성주가 품고 있는 훌륭한 자연경관과 관광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고령군과 성주군의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칠곡은 낙동강방어선 일대의 호국보훈시설을 연계해 ‘6·25 참전국 관련 기록, 전시 공간 조성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칠곡군을 대한민국의 대표 호국명소로 조성해 자유민주주의의 기쁨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의 자연 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의 문화 자원을 활용해 ‘팔공산 관광 자원화’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일해야 하는 구미, 일 잘하는 의원 필요”

구미갑 구자근 선거사무소 개소식 지지자 2000명 대거 몰려 ‘세 과시’



4·10 총선 경북 구미갑 선거구의 구자근 국민의힘 후보(56·사진)가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 현장엔 2000여명의 지지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구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지난 4년간 구비 1조 1658억원을 확보해 구미시 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고, 88건의 공약 중 92%의 공약을 현실화했다”며 “일해야 하는 도시 구미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후보는 이어 “산업·문화·스포츠·관광 등 분야에서 필요한 공약을 이행해 차질 없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완전히 새로운 구미 산단을 만

들어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공항 배후도시의 이점을 살린 ‘2박3일’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 누구나 오고 싶은 구미를 만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구 후보는 △구미산단 랜드마크 조성 △산단 내 복합문화공간 및 근로자 임대주택단지 조성 △신구미대교(가칭) 건설 추진 △KTX-이음 구미역 정차 현실화 △물 순환형 복합리조트 유치 추진 등의 구미발전 공약을 제시했다. 구미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구 후보는 동국대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5대 구미시의원, 9·10대 경북도의원,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 등으로 활동했다. 이은진 기자

“구미에 독립운동기념관 건립하겠다”

민주당 김철호, 구미갑 후보 등록



김철호 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갑 후보(69·사진)가 22일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한 뒤 “구미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해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알리고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이며, 무너진 민생을 살려야 하는 선거”라며 “1당 독점을 무너뜨리고 오로지 시민만 바

라보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구미 YMCA 이사장, 구미잡여연대 집행위원장, 형곡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구미시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은진 기자



남구, 계명대와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협약

대구 남구가 계명대학교와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대구 남구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을 통해 공공형 창업지원 인프라 조성과 지역 청년의 창업 촉진 등에 상호협력한다. 특히 창업지원을 위한 시설은 계명대 대명캠퍼스 동산관 유희공간에 코워킹스페이스, 창업

보육실, 장비실, 실습실 등을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26.5억 원이 투입된다. 남구는 문화·예술·콘텐츠 영역을 아우르는 3차원 디지털 기술 분야 청년 창업가와 전문인력을 배출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국 1호 기회발전특구 신청...대구 혁명적 변화 마중물

수성알파시티 등 4조원 투자 "최첨단 경제영토" 의지 표명

대구는 지난 4일 열린 대구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의 '동부권의 수성알파시티 국가디지털혁신거점 조성'과 서남부권 모빌리티·로봇 중심의 산업 재편' 약속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윤대통령은 이날 "수성 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해서 제조업과 디지털의 융합을 이끄는 R&D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세계감반·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고시(24.3.4)를 통해 별도 공모 기간 없이 지방에서 준비되는 대로 특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대구지방시대위원회와 열고 '대구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심의해 3월 22일 (금) 전국 제1호로 특구를 신청했다.

시는 경제·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자, 수성알파시티(디지털)와 국가산단·금호위더폴리스(첨단제조) 중심으로 1차 특구를 신청한다. 광역시는 총 150만 평 범위 내에서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신청 면적은 총 2734천㎡(83만 평), 투자 규모는 4조 원 정도다.

△수성알파시티는 ICT/SW 기업 243개사, 상주인원 4,525명, 기업지원 인프라 13개 등이 위치한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ICT/SW 기업 집적단지다.

지난해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선정된 데 이어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주요 투자기업은 AI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인 SK리츠운용(주)·SK(주) C&C 컨소시엄을 비롯한 6개 기업이며, 총 투자 규모는 1조 396억 원 정도다.

△국가산단은 현대로보틱스, 대동모빌리티 등 첨단제조 관련 200여 개 기업을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DGIST, 계명대·경북대 캠퍼스 등이 집적한 지역 최대 규모 혁신연 집적단지다.

특히 지난해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인근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이차전지 순환파크 등도 조성되고 있어 향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미래산업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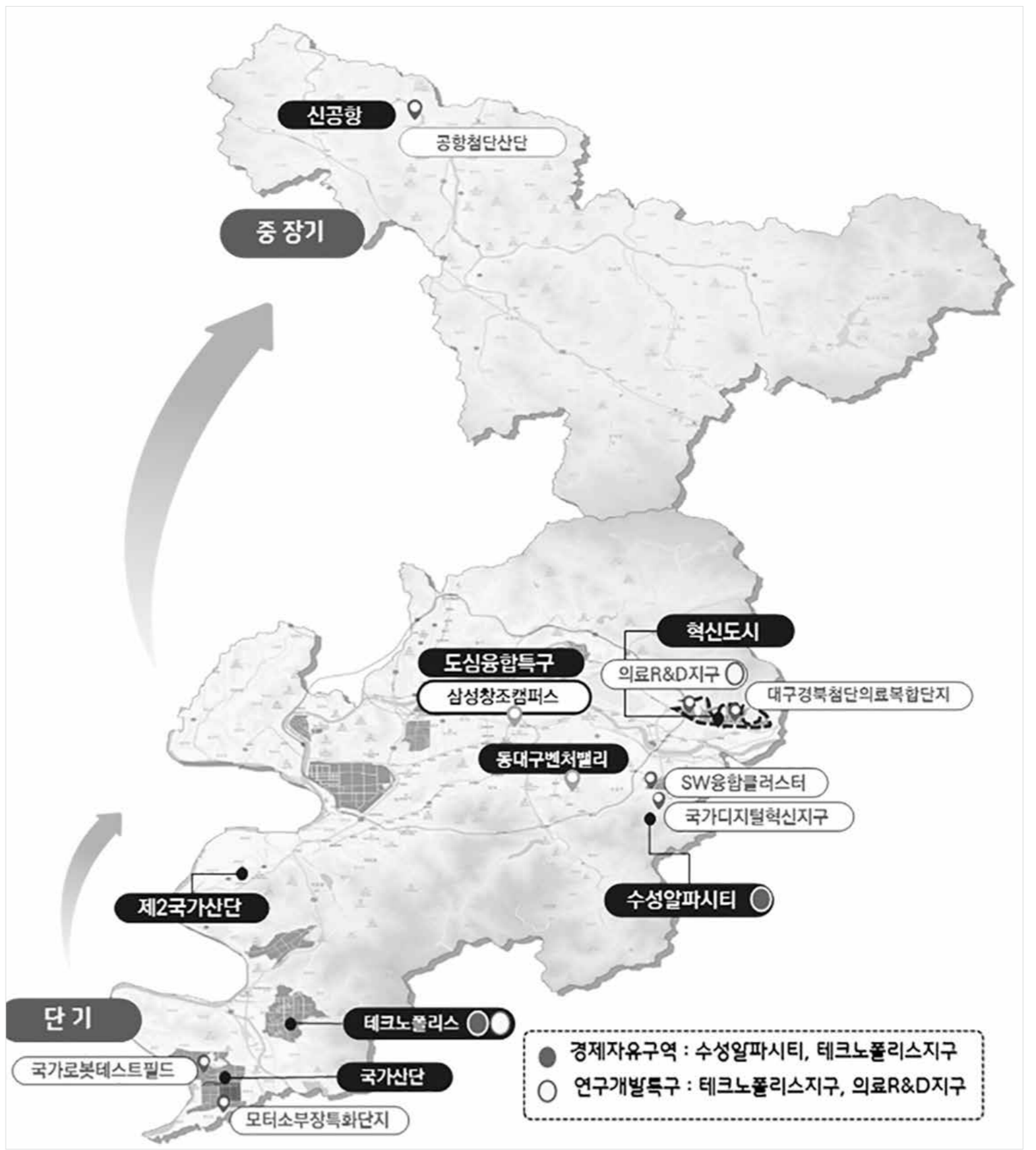
주요 투자기업은 이차전지 종합소재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 중인 엘엔에프,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참여기업인 코아오토모티브 등 6개 기업이며, 총 투자 규모는 2조 8617억 원 정도다.

△금호위더폴리스는 서남부권에 치우친 제조산업단지과 동부권의 디지털 집적단지를 연결하는 중간 거점으로, 지역의 '제조-디지털 벨트'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심형 핵심 거점이다.

주요 투자분야는 전기차·로봇 부품, 이차전지 모듈 등으로, 특구 지정 시 국가산단과 시너지 창출은 물론 지역 간 고른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정책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투자에 따른 직접 고용효과는 4355명, 재정투입에 따른 취업유발은 2454명 정도로 예상된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의 기회발전특구 전국 1호 신청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로 커질 대구의 경제영토를 최첨단 산업과 기업으로 채우겠다는 대구시 의지의 표현이다"면서, "앞으로 제2국가산단, 군위신공항산단 등 대구시 미래산업공간으로 특구를 확장하고, 향후 도심융합, 교육, 문화특구와 연계해 최고의 기업집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 공예상품으로 문화경제 이끈다

들안예술마을 활성화 박차



수성구는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 손잡고 매력적인 공예상품 개발 지원 등 들안예술마을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들안예술마을은 수성구가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비전으로 민간 공방, 문화예술시설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공예 분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부터 조성을 시작했다.

그간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해 다양한 공예를 중심으로 한 시각예술 거점시설 구축을 목표로 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공예상품을 도출함으로써 공예 중심 비즈니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나선다.

특히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가진 디자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예상품의 가치 향상과 홍보·마케팅·판매 등 비즈니스 역량 강화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성구와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지난 15일 합장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들안예술마을 활성화 사업설명회를 개최

했다. 지역 공예 기업 관계자와 작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예상품 개발과 도제식 교육, 들안아트몰 판매 등 사업 전반을 소개했다.

들안예술마을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은 공예 상품 개발과 제작, 판매, 전문가 양성 등 문화경제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들안예술마을 공예 특화상품 개발 지원은 지역 우수 공예상품 상품개발과 제작, 마케팅 콘텐츠와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소재·기술 및 디자인 교육, 판매 연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대표 공예상품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들안아트몰 참가 지원"은 들안아트몰이 지역 공예상품 소비 순환을 위한 대표 판매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판매부스를 50개 이상 구성하고, 우수상품은 제작자금을 지원한다.

"들안예술마을 기술매출 교육"은 중간작가와 공방작가·일반인 간 도제식 교육으로 소재 이해와 가공 방법을 습득하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소규모 인원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 전문가가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들안예술마을, 더 나아가 수성구 문화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경쟁력 있는 공예상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수성구가 문화도시로서 나아가는 중요한 한 해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 '군민이 빛나는 달성' 초석 만든다

2024년 제1회 추경 9657억원 확정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121억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증액 편성

달성군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22일 제31회 임시회 본회의의 원안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29억원이 늘어난 9657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9610억원, 특별회계 47억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아이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군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명품도시 조성 등 군민이 빛나는 달성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관광기반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으로 △화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 사업 11억 원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5억 원 △다사 환승주

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7억 원 △논공읍 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11억 원 △논공읍민 복지회관 건립 3억 원 △가장 주민종합복지회관 건립 3억 원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121억 원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53억 원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잔여부지 조성 8억 원 △육곡강변파크골프장 조성 5억 원 △세천늘테마 정원 시설 확충 공사 10억 원 △마천산 숲길 정비 10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7억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위한 24시간 시간제 보육 지원 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및 중등영어 방학캠프 9억 원을 증액 편성해 달성교육재단에 출연했다.

더불어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교육, 문화, 돌봄 등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화원초등학교 12억 원, 달성중학교 30억 원을 받

영하여 교육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군민편리 도모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정비사업 139억 원 △우수관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31억 원 △안전 및 하천 환경개선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등 24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6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농가 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 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24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노인 일자리사업 등에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한다.

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만드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원안결의로 현안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7만 군민들이 지속 가능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중구청, 식품제조업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중구청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25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로 4월 12일까지 사업신청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가품

질검사 성적서(최근 2회분)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중구보건소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업소에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중구 보건소 위생과(☎661-2764)로 문의하면 된다. 조미경 기자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식품 유통에 따라 1~3개월마다 실시하는 식품 안전성 검사로, 검사 시 많은 비용이 필요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시 '상주꽃감의 사계' 사진전...꽃감 역사성 알려

상주시가 상주꽃감공원 감락원에서 '상주꽃감의 사계(四季)' 사진전을 연다. 상주꽃감 관련 사진들을 전시해 상주꽃감공원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상주지역 사진작가 동호회가 상주풍경연구회 작품 40여점을 전시한다. 감나무의 봄, 여름, 가을, 겨울별 세부 장면들을 통해 상주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했다.

꽃감 생산 과정을 통해 상주꽃감의 우수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시는 상주 전통 꽃감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5호로 지정된 후 상주꽃감공원 감락원에 샌드크래프트 놀이시설, VR체험장, 상주꽃감을 이용한 음식만들기 가상체험장 등을 설치했다.

저출산... 지방 도시 돌봄·주거 기반이 큰 문제

경북도 청년 공무원들이 본 '저출생 해법'... '이것' 꼽았다

저출생과 전쟁 중인 경북도가 지난 22일 예천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도청의 미혼남녀 공무원들과 '저출생 해법 경청 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

출생과 전쟁본부장, 만 34세 이하(1990~2000년생)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도청에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공무원은 전체 직원(2726명, 시군 소방 제외) 중 526명으로 19.3%를 차지하고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다. 점에서 저출생 극복 정책 구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들은 식사를 겸한 자리에서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고 미루는 이유에 대해 개인 관

점과 사회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 관점에서는 △지방 도시의 돌봄·주거 등 기반 문제 △낮은 임금 △늦어지는 사회 발달 등을 꼽았다.

사회 관점에서는 △결혼 비용 △주택자금 부담 △남녀 갈등 등을 내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도 내놴다.

한 남자 직원은 "개인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

는 젊은 세대에게 현재는 행복하지 않은 사회"라며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 줘야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다. 이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여성 직원은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희생이 필요한 사회 분위기"라며 "여성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우리 사회가 먼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행정부지사는 "결혼과 출산을 앞둔 젊은

이들은 저출생과 전쟁 중심에 있는 그룹"이라며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사업으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모임에서 나온 의견들을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 가족 친화 기업, 돌봄센터, 다문화 가정 등 민간 분야로 확산해 젊은이들의 의견을 더 듣고 의견 발굴도 계속 해 나간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포항, 지역기업 탄소중립 기술 확보 지원 추진

포항 금속소재산업진흥원(이하 POMIA)은 지난 22일 이강덕 포항시장, 주세돈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 전익현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 2024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POMIA는 지역성장전략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기업 육성이라는 목표로 차세대 이차전지소재 기술, 고기능 탄소 중립형 미래 금속소재 기술, 소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이차전지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 이차전지 소재 포토폴리머 다변화 실증센터 구축과 이차전지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글로벌 초격차 기술개발을 선도한다.

금속소재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금속자원순환 고부가블루철강 제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과 수소용 철강소재부품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 등으로 지역기업의 탄소중립기술 확보 지원을 추진한다.

디지털전환(DX) 분야는 금속소재 DX 실증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DX 제조혁신 지원과 DX전문기업 육성으로 디지털전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철강에서 이차전지 등 에너지 소재 분야로 확장된 친환경 소재산업 열린 공동연구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기업과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POMIA는 지역 핵심산업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영역 확장으로 '포항 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 '포항소재산업진흥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정창명 기자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만 34세 이하 공무원들이 지난 22일 예천의 한 식당에서 '저출생 해법 경청 미팅'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영호남 협력 상생, 교육이 살아야 지방도 ...

경북교육청, 2024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

경북교육청이 전남교육청과 함께 협력과 상생의 영호남 교육 교류 증진을 위한 공동연수를 가졌다.

공동연수는 지난 21, 22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여수시 일대에서 열렸다.

2014년 10월 제1회 워크숍을 시작으로 9번째 행사다.

행사에는 경북과 전남의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부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두 지역의 교육 정보를 나누고 교육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1일에는 전남교육청 국제교육원 방문, 특색 사업 발표, 공동 주제 토의,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의 등을 진행했다.

지역 중심 교육 실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양 교육청이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2일에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은 교육 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다. 상호교류 활동을 통해 두 지역의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2024 상상주도 비박페스티벌 대박났다

봄 향연 상주매력 도취 상주 관광 소중한 추억



상주시가 마련한 '2024 상상주도 비박페스티벌'이 막내렸다. 행사는 상주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23, 24일 이틀간 북천시민공원 일대에서 열렸는데 청년단체 상의회의가 주관했다. 비박페스티벌은 비박(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이용, 하룻밤을 지새는 일)을 기본으로 여러 부대행사가 진행되는 축제다.

전년도 첫 개최로 참가자들과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 올해 두 번째 막을 올리게 됐다.

지난 1월 15~2월 16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은 결과, 무려 1130여팀이 신청했다.

그 중 추첨으로 선정된 292팀이 1박 2일간 북천시민공원 일대에서 비박을 즐겼다.

첫날 비박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벚꽃길 트레킹 및 참가자 노래자랑부터 일반 방문객도 즐길 수 있는 북천 잔디밭 돛자리 영화제와 각종 부대행사가 준비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봄철 상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가시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며 상주 관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경주시, 22억 들여 장군교 경관 개선 사업 마무리

경주시가 사업비 22억원을 들여 추진한 '장군교 경관 개선사업'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 사업은 '신라의달밤 황금조명갤러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12월 경관 심의 등 각

종 행정절차가 완료되면서 본격화됐다. 장군교의 노후 난간 교체, 보행로 보수, 경관시설물 개선, 상징조형물 및 야간경관조명 등이 설치되면서 쾌적한 보행환경이 마련됐다는 평

가다. 장군교는 도심권역과 흥무공원을 이어주는 인도교로 과거 열차가 다니던 철교였지만, 폐선이 되면서 현재는 보도교로 활용돼 오고 있다. 하지만 시설 노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물

경주시, 우즈베키스탄 해외 유학생 파견 협의

우호결연 10주년 기념행사 후속 사업 우즈벡 현지방문

경주시가 해외우호도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와 新 실크로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김성학 부시장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를 방문해 우마르프 파지리트인 사마르칸트시장과 오이벡 함라예브 사마르칸트주 부주지사

와 경제협력 간담회를 현지에서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방문은 지난해 12월 경주시·사마르칸트시 우호결연 10주년을 기념해 추진된 사마르칸트 경제교류단의 경주 방문에 따른 답방 성격으로 추진됐다.

현지 방문에는 지난해 12월 사마르칸트와 경제 협력을 논의해 온 경주상공회의소 이상걸 회장이 동행했다.

앞서 경주시와 사마르칸트시는 양국의 고도이자 실크로드 거점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난 2013년 8월 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이래, 학술·관광·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

양 도시 간 교류는 2023년 우호결연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경주시·사마르칸트시 우호결연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알리모프 딜쇼드(Alimov Dilshod) 사마르칸트시 교환공무원이 경주시에서 6개월 간 연수를 했다.

5월에는 사마르칸트 관광교류단이, 12월에는 사마르칸트 경제교류단이 경주를 방문했다.

김성학 부시장은 "양국의 고도이자 실크로드 거점도시인 경주와 사마르칸트는 긴밀한 교류를 추진해왔다"며, "실크로드 협력사업으로, 양시 대학 간 해외 유학생 파견 사업, 경주시가 아태지역사무처를 두고 있는 세계유산도시기구(OVHC) 가입 및 상공회의소 상호 교류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마르프 사마르칸트 시장은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OVHC-A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양시 경제 교류 활성화와 해외 유학생 파견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있다"고 화답했다.

경주상공회의소 이상걸 회장을 포함한 상의 회원들은 사마르칸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산업 간담회에서 오이벡 사마르칸트주 부지사를 비롯한 상공인들과 함께 양시의 구체적인 경제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학 경주시장이 우마르프 파지리트인 사마르칸트시장을 접견한 후 시청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10억 투입된 황금대교 오늘 전면 개통

폭 20m, 연장 371m 규모 왕복 4차선 교량

주낙영 경주시장이 25일 0시 개통을 앞둔 황금대교 현장을 점검했다.

주시장은 지난 22일 '황금대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개통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추진 경과와 개통 준비상황을 직접 보고받았다.

주시장은 마무리 공사현장과 접속도로 조성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개통 전까지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서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황금대교는 폭 20m, 연장 371m 규모의 왕복 4차선 교량으로 총사업비 410억원이 투입됐다.

차량통행뿐 아니라 시민 편의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겸용 보행로도 함께 조성했다.

2021년 3월 공사를 시작한 뒤 3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황금대교는 경주시가 만성적인 지역 교통난 해

소를 위해 정부와 경북도에 설득한 끝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그간 현곡면 및 용화지구, 황성동 일대는 아파트 등 잇따른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한 탓에 강변로 및 금장 일원의 출퇴근길 교통 체증이 심화하는 상황이어서 황금대교에 기대는 주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크다"며 "황금대교 개통에 따른 우회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개선됨을 물론, 문화관광 도시 인프라 확충에 따른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살기 좋은 산내면 우리1리 사업 본격 추진

농촌 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정주환경 개선, 주민 역량강화

경주시가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산내면 우리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이 주도한다.

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 사업을 구상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년간 총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본격 사업에 앞서 산내면 우리리 마을은 지난 달 23일 기본계획 착수에 나서 이번달 12일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주민설명회에서는 25명의 주민들이 모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해하고 마을의 자원 및 테마 발굴, 마을 발전계획 수립 과정을 진행했다.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기초가 될 전망이다.

시는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하고, 향후 시설계획 및 시행계획 최종 승인을 거친 후 착공에 들어간다.

현재 2024년 마을만들기사업 대상 지역은 △산내면 우리리 △서면 서오리 △안강읍 산내1리 △현곡면 하구리로 작년 공모에 선정,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2022년 마을만들기사업 대상 지역인 △문무대왕면 용동2리 △현곡면 하구2리는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3년 마을만들기사업 대상 지역인 △강동면 오금3리 △서면 사라리의 경우 시행계획 수립 후 착공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우리 시에서는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의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경주시, 농업정책보험 3종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

47억 투입 농업인 농기계 농작물 70~90%까지 지원

경주시가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 3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47억원 예산을 들여 △농업인 안전보험 70% △농기계 종합보험 70% △농작물 재해보험은 90%를 각각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역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15~87세(단 일부 상품 84세까지) 농업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발생한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 사고, 대인·대물배상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등 12종)를 소유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총 73품목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며 품목보험 대상별 가입 자격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 9153농가 △농기계 종합보험 1386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3179 농가를 각각 지원했다.

시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춰 빠짐없이 가입해 주길 당부했다.

경상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희망합니다. Golden City Gyeongju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영덕군 '전문농업인 양성'
2024년 농업대학 개강

영덕군은 관내 농업인들에게 전문기술을 전수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1일 2024년 농업대학을 개강했다.

영덕군 농업대학은 사과반과 복숭아반 2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사과반은 노동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과원(2축·다축) 조성을 중점적으로 교육, 복숭아반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차 복숭아 심화 교육으로 진행된다.

농업대학엔 사과반 43명, 복숭아반 25명, 총 68명의 교육생이 신청했다.

오는 9월 3일까지 6개월간 사과반은 총 72시간, 복숭아반은 총 71시간 교육이 이뤄진다.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사랑의 날'

영덕군가족센터는 영덕 관내 가족 10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족사랑의 날은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취지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했다.

영덕가족센터는 3~8월까지 매월 2회, 수요일마다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오는 27일 그림책놀이를 시작으로 4월 마크라메, 디저트요리, 5월 도자기 핸드페인팅, 센터피싱, 6월 시그니처 향수, 가족문패만들기, 7월 책과 함께하는 원예, 든든한 집밥 한끼, 8월은 우리집 여름보호제, 신체놀이 등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족사랑의 날 행사는 지역 내 거주하는 2인 이상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부모 및 조손가정, 신규참여 가정은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조여은 기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

청도군은 지난 21일부터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한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올바른 건강 습관 형성과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은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건강상담 및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조여은 기자**

윤경희, 소통으로 하나 되는 청송건설



청송군 제1기 '나도 청송 홍보맨' 발대식

청송군이 소통으로 하나 되는 청송을 만든다.

군은 지난 21일 홍보 활성화를 위한 다짐대회 및 교육을 가졌다. 군민과 소통으로 하나 되는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청송군 공직자를 '나도 청송 홍보맨'으로 위촉했다.

군은 공직자들에게 SNS를 통한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로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과원소 각 팀 90여 명의 '나도 청송 홍보맨'을 선발했다.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로 이루어진 '나도 청송 홍보맨'은 홍보가 필요한 군정소식 등을 홍보 부서로 직접 요청함으로써 정보의 누락 없이 군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에는 SNS를 통한 홍보가 필수인 뉴미디어 시대에 맞추어 SNS 홍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전문강사를 통해 100분간 홍보전략 및 사진 촬영 기법, 숏폼 동영상 제작 방법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에게 필요한 행정 사항을 정확하게 알리고 소통하는 것이 요즘 시대 행정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발된 제1기 '나도 청송 홍보맨'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통으로 하나 되는 청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울진군, 2024 1분기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행사 성황

울진군은 우수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지난 20일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80명이 참석, 열렸다.

'문화힐링데이'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봉사자 중 월별 으뜸 봉사자를 선정하

고, 각 봉사단체에서 추천한 회원이 영화를 감상하며 문화활동을 한다.

울진작은영화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기성적십자 김경화 회장, 우진다우회 주옥선 회원, 후포여성자원봉사회 진양희 부회장이 으뜸봉사자로 선정, 수상했다.

장태윤 센터장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느라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자원봉사 인정 예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고 전했다.

순병복 울진군수는 "으뜸상을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늘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이다"라고 축하 세웠다.

그는 "취약계층 지원, 농촌 일손지원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지역사회 곳곳에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지도자로서 앞장서주면 더 많은 군민들께서 마음을 보태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군이 될 수 있다는 자원봉사자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울진군수가 실과소 직접 찾아가는 결재?



울진군은 군정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지난 15일 실과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결재를 도입했다.

방문 결재는 일 줄이기와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기획예산실과 재무과에서 진행했다.

군은 앞으로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으로 방문결재를 비롯, 직원과의 도시락 간담회 등을 추진, 직원건의사항 및 군정 발전 아이디어 등을 청취한다.

군의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즐기며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분위기가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져 군정 목표인 '섬기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순병복 울진군수는 "앞으로도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를 통해 군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군정으로 운영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순 군수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군민심검검데이, 민원 현장 점검 등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섬김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윤환 기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의용소방대원

영양군, 우리 지역 안전 지킴이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이 22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법'이 제정된 날인 1958년 3월 11일과 소방'119'를 조합한 3월 19일이며,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한 공식 기념일이다. 의용소방대원의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영양군

의회 의장, 김민희 안동소방서장 등 각 기관 내빈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의용소방대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축사, 의용소방가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도지사 표창 등 19명이 표창을 받아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산불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현장에서 항상 힘을 보태준 엄주기 영양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이번 기념식을 맞이하여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에 산불과 같은 재난 현장에서 항상 도움을 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노력한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양군민의 소방안전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울릉도, 음식점 영업주 상반기 위생교육

친절한 서비스 안전 먹거리 제공 소비자 눈높이 맞춘 맛있는 음식

울릉군은 지난 22일 울릉군민회관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음식점 영업주 상반기 위생교육을 했다.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음식점 영업주가 알아야 하는 위생 관련 준수사항과 개인위생관리 방법, 올바른 식자재 보관법, 조리기구 소독법,

식품조리 시 숙지사항 등의 교육과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영업주들이 알아야 할 내용도 함께 교육했다.

교육에 이어 환경미화팀에서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관광문화체육실에서는 친절상점과 민간관광안내소 '어서 오세요'에 대해 음식점 영업주들에게 안내했다.

위생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음식점 영업주는

올해 내 온라인으로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맛있는 음식, 친절한 서비스, 깨끗한 환경, 적극적인 홍보 등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의성군,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분야 최우수상 수상

의성군은 경북도가 주관한 '2024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분야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과 3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기관 표창은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업무추진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 이뤄졌으며, 평가항목 중 물관리 분야, 상·하수도 분야, 물 산업 육성 분야에서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군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를 목표로 노후 관 교체사업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수도요금 인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 개선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98.6%로 향상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천의 수질개선을 강화해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살맛나는 활력 의성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봉화군, 배우 이성민
봉화군 홍보대사로 위촉

봉화군은 이성민 배우를 봉화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1일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군 특산물인 최고급 한약재를 먹고 자란 봉화 한약우세트와 춘양목의 버섯세트 기념품 증정식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홍보에도 앞장섰다.

위촉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봉화군의 축제, 관광, 체육진흥 등에 대한 참여와 홍보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성민 배우는 "고향인 봉화군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이고 앞으로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배우 이성민은 봉화군 봉화읍에서 태어나 1987년 연극 '리투아니아'로 데뷔해 13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서울의 봄'을 비롯해 재벌집막내아들, 미생 등 다양한 장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이다.

또 봉화군 소천면 양원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 '기적'에서 기관사 정태운 역을 맡아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여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영천시, 미래를 이끌 주역들을 만나다



영천시는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관내 청년 CEO가 운영하는 사업장 7곳(카페 스타티오, 마이데이와인, 인사이트 스포츠, 커피데이브, 북두카페, 시소, 영천시티무용학원)을 방문해 청년창업가를 격려하고 앞길을 응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첫 번째로 방문한 사업장은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에 위치한 '카페 스타티오(대표 박문수)'이다.

'카페 스타티오'는 지역 특산물인 사인머스켓을 활용해 만든 사인머스켓빵과 콤포지터 대표 아이템으로 창업했다. 종합스포츠센터가 보수공사 완료 후 재개장에 활기를 되찾게 되면서 센터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두 번째 사업장 방문지는 완산동에 위치한 와인

과 실버 액세서리를 함께 판매하고 있는 인기 있는 와인숍 '마이데이와인(대표 손명옥)'이다.

와인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와인마다 텍으로 친절히 설명과 함께 와인과 페어링하기 좋은 치즈와 가벼운 주전부리도 함께 구비해 놓았다.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특별한 날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예쁜 실버 액세서리도 만나볼 수 있어 와인에 열광하는 MZ세대들의 아지트로 기대되는 곳이다.

세 번째로 방문한 '인사이트 스포츠(대표 김용현)'는 유아체육, 생활체육, 놀이 축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스포츠 교육기관이다.

생활체육 분야가 아이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로 학업 성과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큰 인기를 끌며 영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고 있는 곳이다.

네 번째로 방문한 사업장은 '커피데이브(대표 한정은)'이다. '커피데이브'는 코로나19로 형성된 홈카페, 홈카페, 셀프 촬영 문화에 영감을 받아 플라워 디테일링으로 2023년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장이다.

'커피'는 한정은 대표의 영어 이름이며, 좋아하는 어원 '페이브'를 엮어 만든 '커피데이브'는 예쁜 꽃과 식물들이 대표의 예술 감각과 함께 플라워 보되어 사업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다섯 번째 방문지는 '북두카페(대표 김유신)'이다. 북두카페는 2022년 땅콩라떼를 대표 메뉴로

대가야축제 '도둑맞은 새' 통해 고분 속 해골 깨어난다!

고령만의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한 우리 뮤지컬

대가야 축제기간 대가야 고분 속 해골들이 대가야 신화극 '도둑맞은 새'를 통해 다시금 깨어난다.

경북도와 고령군이 주최하고 고령관광협회의 회 주관, 영남일보 협력으로 선보이는 이 뮤지컬은 오는 30일(오후 2시, 오후 5시 30분)과 31일(오후 2시)이틀동안 대가야문화누리에서 공연된다.

극이 진행되는 고령군 지산동에 위치한 가야고분군은 지난 2023년 대한민국이 보유한 16번째 세계유산으로 선정됐다.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은 유난히도 도굴을 심하

게 당했다. 그 중 상당부분은 일본으로 넘어가 지금 동경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일제시대 기록에 고령의 무덤 300여기를 도굴해 굵은 우뚝을 굵어 모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대가야 신화극 도둑맞은 새는 대가야에는 남아 있지 않은 오리모양 토기의 미스테리를 쫓으며 시작됐다.

신화 속 사람과 자연의 조화라는 인간의 지혜를 담은 이 뮤지컬은 도둑맞은 유물에 관한 상실감을 풍요로운 예술의 힘을 통해 재미난 이야기로 달랜다.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은 "선조의 지혜를 담은 대가야 신화극을 자녀와 함께 관람해 좋은 역사교육의 계기가 되시길 또한 바란다"고 밝혔다.

삶과 죽음을 다루는 이번 뮤지컬은 헤비메탈 밴

드와 가야금이 조화를 이룬다.

허동혁 작곡가는 "헤비메탈은 여러가지 음악 장르 가운데 죽음을 가장 가깝게 다루는 음악이며, 또 한편으로는 어딘지 모르게 금기시 되는 음악 장르이기 때문에 음악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는 헤비메탈을 선택해 작업했다"고 말했다.

헤비메탈과 함께 신명나는 춤사위를 보여주는 해골 무사들의 의상은 고령의 문화자원에 기반해 디자인됐다.

극 중 진행되는 그림자극의 유물들도 고령군의 문화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날 참가자에는 "고령만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 자원을 스토리텔링한 우리 뮤지컬을 통해 대가야의 역사와 이야기를 좀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가고자 했다"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영주시민 건강걷기대회... 1천 500여 명 참가

가족·연인 함께 참가해
'서천의 봄 향기 만끽'

'2024 영주시민 건강걷기대회'가 23일 서천 둔치에서 시민 1천 500여 명이 참가해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봄을 맞아 시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해 영주시체육회가 마련한 이번 걷기대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됐다.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개회식 후 제조를 하며 몸을 풀고 영주교 아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출발해 제1가하교, 제2가하교를 거쳐 한정교를 반환점



농업회계교육으로 농업인, 농업CEO로 거듭나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센터 교육장에서 정보화농업인회원 20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및 마케팅 능력향상을 위해 농업회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회

계교육을 초급, 중급, 고급, 리더과정까지 수료한 전문강사가 농업회계의 이론과 실습, 농업경영체 분석시스템 활용방법, 알뜰농부업을 이용한 농업회계 활용이란 내용으로 총 9시간 진행했다.

으로 돌아오는 7km 코스에서 가족·연인·지인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배동민(가흥동) 씨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했다"면서 "갑자기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망설였지만 탁 트인 서천을 걸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참가자에게는 티셔츠와 간식 등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됐으며, 추첨을 통해 가전제품, 자전거 각종 생활용품 등의 경품 당첨 기회도 제공됐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봄 기운이 가득한 서천 둔치를 걷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 여러분들이 오늘 영주의 생명 강줄인 서천에서 봄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농업인들은 농업회계교육으로 분개를 통해 분류하고 시산표, 생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 향상은 물론, 경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농업경영체기록분석시스템을 통해 농장에 관련된 자료를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본인의 농장경영분석 결과를 알 수 있어 경영비 절감과 수익구조 향상 등 농가소득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도재훈 기자

청년들의 성장과 영천시 성장 함께한다

오픈해 지역 청년들의 인기 카페로 문을 열었으며, 현재는 '망정동 빵집(대표 이수빈)'과 협업으로 소그미 빵과 함께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명실상부한 핫플레이스 사업장이다.

이어 21일 방문한 사업장은 심리발달상담센터인 '시소(대표 구은주)'이다.

'시소'는 'SEE:SAW' 보다, 문제들을 보는 것(SEE)에 그치지 않고, 내면의 아픔을 만나(SAW) 마음의 균형을 찾고 일상을 지키고자 문을 열게 된 심리발달상담센터이다.

구은주 대표는 몸이 불편했던 친구를 도우며 함께 보냈던 확장 시절의 기억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돕겠다는 꿈으로 대학에 진학했으며, 2023년 영천시 창업 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그 꿈을 고향으로 돌아와 실현하고 있다.

마지막 방문한 사업장은 '영천시티무용학원(대표 임예슬)'이다.

'영천시티무용학원'은 현대무용, 실용무용, 발레 교육 전문기관이다. 임예슬 대표는 먼저 '영천시티무용단'을 이끌며, 지난해 경북도 청년공동체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무료 무용교육 및 공연 활동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욕구와 활력을 높이기도 했다. 또한 '무용'이라는 분야를 생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2023년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자로서 그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차세대 주역인 청년 창업가들이 더욱 탄탄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이 되길 바란다"라며 "미래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청년들이 성장하여 우리 영천시도 함께 성장한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최은하 기자

의성군, '도시녹지'와
'일자리' 둘 다 잡다!

의성군은 관내에 조성된 녹지공간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녹지관리원 4명을 선발해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도시녹지관리원들은 녹지공간에 식재된 수목의 가지치기, 고사지 정리,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하여 생활권 녹지공간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 피해목 세우기 등 즉각적 민원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의 하나인 도시녹지관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공개 모집을 통해 진행됐다.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을 통해 취업을 바라는 군민에게 생계안정과 근로의욕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으로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유지관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로 녹지공간 관리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사회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조되는 만큼 정기적인 안전교육, 안전장구 착용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경북경찰청장, 안전관리 상황 점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의성군 사곡면 일대에서 개최되는 산수유마를 꽃맞이 행사장을 찾아, 현장 근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축제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의성 산수유마를 꽃맞이 행사는 행사기간 중 약 7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은 인파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관리 등을 위해 일일 18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김 청장은 현장간담회를 통해 경북을 맞은 관광객들이 좋은 기억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안전·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로에 대한 칭찬과 함께 "경청"하고 "응답"하는 소통의 문화를 강조했다.

박재성 기자



2024 대구광역시일보

女人天下 챔피언십



5월 20일 (월) 순차플레이

- 팀 : 20팀 선착순 마감(입금자순)
- 참가비 : 27만원
- 장 소 :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주최·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

3월 21일 ~ 4월 30일(입금자우선)

- ※입금 후 환불 불가 (선수교체 가능)
- ▣ 참가자격 : 아마추어
- ▣ 참가비 : 27만원 (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 김영숙) 대구은행 508-11-147821-4

-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 담당 010-4473-4473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특별 행운상

- 임플란트 진료권
- 한의원 상품권
- 성형외과 시술권
- 호반오리 무료시식권
- 골프장 그린피할인권

메달리스트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성형외과 진료권 20만원

신페리오

- 우승
150만원 (백화점상품권)
- 준우승
100만원 (백화점상품권)
- 3위
70만원 (백화점상품권)
- 롱기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 니어리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만찬장소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층 대식당